

공간이 들리고 소리가 보이는

콩치노 콘크리트

글 이승열 사진 전문식

웅장한 스피커의 뛰어난 음질

거대한 스피커로부터 흘러나오는 압도적인 소리와 그 앞으로 넓게 펼쳐진 임진강. 이곳에서 음악을 듣고 싶다면 소리의 아름다움이 무엇인지 깨닫는다. 소리와 공간이 조화롭게 어울려 아름다운 경험을 선사하는 파주의 음악감상실 '콩치노 콘크리트(Concino Concrete)'다. 음악감상실로 들어서면 커다란 스피커가 눈길을 사로잡는다. 1930년대 유럽의 극장에서 사용한 '웨스턴 일렉트릭'과 '클랑필름'의 제품으로, 고풍스러운 디자인과 바로 옆에서 듣는 듯 입체적인 음질이 매력적이다. 특히 웨스턴 일렉트릭 스피커는 제작한 지 8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재현이 어렵다는 평이 있을 정도로 음질이 뛰어나다. 이 제품들은 크기만큼이나 사운드 또한 웅장해 826㎡(약 250평) 남짓한 규모의 공간 어디에서도 생생하게 음악을 감상할 수 있다.



- ❶ 콩치노 콘크리트 전경.
- ❷ 곳곳에서 오래된 소품을 찾아보는 재미가 있다.
- ❸ 벽장을 가득 채운 1만여 장의 LP와 2층 음악 감상 공간.



눈까지 즐거운 문화공간

어릴 적부터 음악 사랑이 남달랐던 어떤 이의 열정으로 시작된 이곳. 홀 우측에는 1만여 장의 LP가 벽장을 가득 채웠는데 클래식과 재즈 음반, 국내에서는 구하기 어려운 희귀 음반까지 종류도 다양하다. 2층에서는 피아노, 색소폰 등 여러 악기를 만나볼 수 있다. 1900년대 초반 유럽 극장에서 상영한 영화들의 오리지널 포스터도 감상할 수 있다. 또한 박물관에나 있을 법한 에디슨 축음기가 시리즈별로 전시돼 눈길을 끈다. 귀뿐만 아니라 눈까지 즐거운 일종의 복합문화공간인 셈이다.



오직 소리에만 집중하는 시간

사실 우리는 음악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다. 집에서는 가족이나 이웃 등 누군가에게 방해가 될까 봐, 밖에서는 소음 때문에, 또 헤드폰과 이어폰이 그 소리를 완벽하게 전달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곳은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을 설계한 민현준 건축가의 도움으로 오직 소리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지었다.

막힘 없이 스피커와 마주 앉게 배치한 홀에서는 맑은 음질을 즐길 수 있고, 1층부터 3층까지 높게 뚫린 층고와 공간 사이 존재하는 틈은 소리가 구석구석 닿을 수 있도록 만들었다. 작은 소음조차 차단하고자 노트 북과 음료 반입도 금지했다. 음악의 흐름을 위해 신청 곡도 받지 않는다. 무엇보다 임진강을 바라보는 창가 자리에서는 음악과 자연이 함께 어우러져 깊은 감성을 전달받을 수 있다. 석양이 질 무렵 콩치노 콩크리트를 방문해보자. 일상에 지친 우리의 몸과 마음이 어느새 따뜻하게 녹아 있을 것이다. 🍷



① 회색 콘크리트와 클래식 소품의 조화.

②③ 콩치노 콩크리트에서는 옷만이 음악에만 집중할 수 있다.